

##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을 위한 '작은 결혼식' 국민인식 및 실태

### I. 개요

☞ 한국사회에서 결혼은 고비용을 동반한 가족 간 결합의식으로 여겨지고 있음. 최근 사회·경제적 압박으로 연애, 결혼, 출산, 내집 마련에 꿈과 희망까지 포함하여 다 포기해야하는 'N포 세대'에서 결혼 기피 및 만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우리사회의 과도한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과 건전한 혼례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정책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자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함.

• 본 조사는 2015. 9. 3 - 9. 24에 걸쳐 전국 단위로 연령, 소득수준, 학력, 경제활동 유무 등을 고려하여 20세 이상 65세이하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최근(2년 이내) 본인 혹은 직계가족의 결혼 경험여부를 고려하여 각 50% 비율에 맞춰 조사를 진행하였음.

• 조사 내용은 결혼 및 결혼문화에 대한 인식, 선호하는 결혼의 방식, 결혼식 규모, 결혼식 비용부담, 결혼 관련 정보 수집방법, 결혼 요소별 인식과 실제, 작은 결혼식에 대한 인지, 작은 결혼식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 등으로 구성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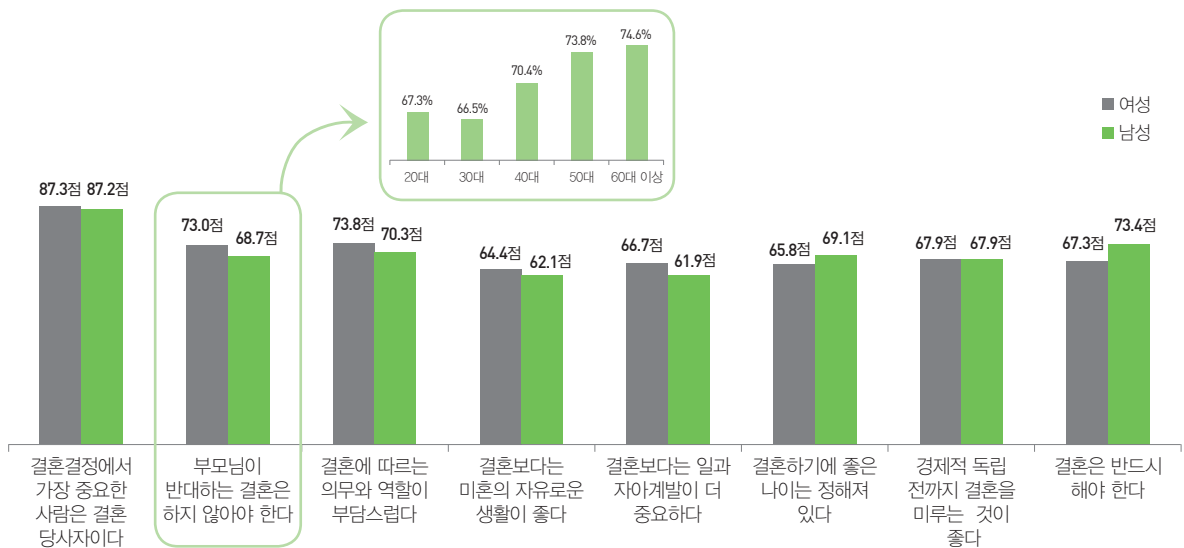
## II. 작은 결혼식 국민 인식 및 실태조사 분석 결과

### 이슈 #1

#### 결혼 문화

결혼 부담은 여성, 필수란 인식은 남성이 더 높음.  
'형편에 맞지 않는 과도한 혼수'가 가장 큰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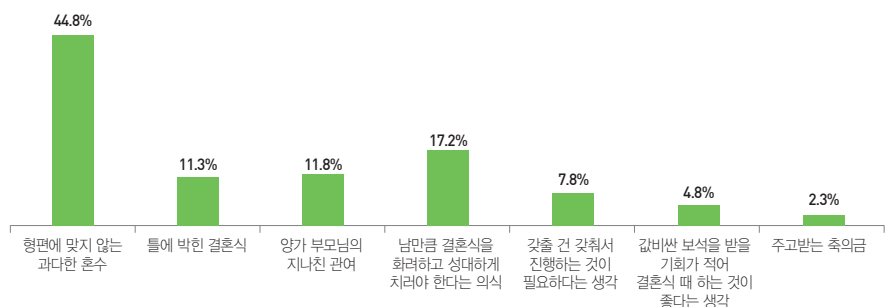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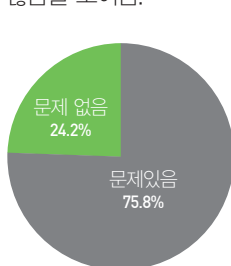
- 결혼에선 '당사자'가 가장 중요하지만 부모 의사를 중요하게 인식함.



[그림 1] 결혼에 대한 인식

- 75.8%가 결혼 문화에 '문제가 있다'에 동의했으며, 원인은 '형편에 맞지 않는 과도한 혼수'로 나타남.

- 결혼문화에서의 문제점은 '형편에 맞지 않는 과도한 혼수 (44.8%)'로 제시했으며, '남만큼 성대하게 치러야 한다는 의식(17.2%)'도 높게 나타나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줌.



[그림 2] 결혼에 대한 문제인식 및 문제점

-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 적령기가 있다(67.5점)'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결혼 적정 시기(경제적 독립 전까지 결혼을 미룬다, 67.9점)와 비교시 연령보다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젊은 세대가 결혼을 기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결혼에선 당사자가 가장 중요하지만 아직까진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수이며,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강하게 나타남. 남녀 모두 결혼에 따르는 의무와 역할은 부담스럽다고 답했으나 여성이 좀 더 부담스러워 하는 것(여성 73.8점 VS 남성 70.3점)으로 파악됨. 본인의 일이나 미혼의 자유로운 생활에 대해 여성이 좀더 긍정적으로 평가함.

## 이슈 # 2

### 선호 결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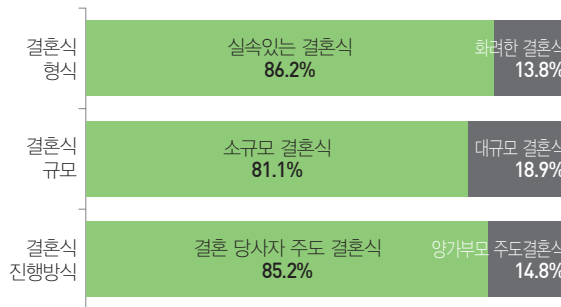
실속있는, '소규모'의 '당사자 주도형' 결혼식을 선호함.  
결혼식 참석인원 100인 이하, 식사비용 2-3만원 미만,  
전체 300-600만원 미만이 이상적

- 선호하는 결혼식을 형식과 규모, 진행방식을 통해 살펴 보면 실속있는(86.2%) 소규모(81.1%)의 당사자 주도 (85.2%)로 구성되는 결혼식을 선호함.

- 선호하는 결혼식의 방식을 항목 간 비교를 통해 알아본 결과 '실속 vs 화려함'에서는 실속을 '소규모 vs 대규모'의 경우는 소규모를 선택했으며 '당사자 주도 vs 양가부모

주도'는 당사자 주도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남. 이러한 선호는 성별, 연령, 소득, 학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 실속있고 소규모로 진행되는 결혼식에 대한 선호는 30대에서 높게 나타남. 부모세대가 상대적으로 양가부모 주도 및 대규모 결혼식에 대한 선호가 높음.



[그림 3] 선호하는 결혼식 형태

- 결혼식 참석인원 : 적정인원은 100인 이하로 생각하나 실제 참석인원은 200인 이하로 답함.

- 전체적으로 '100인 이하'가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200인 이하에 대한 적정성도 유사하게 나타남. 남성, 30대, 초대 줄의 경우에서 100인 이하를 적정하다고 파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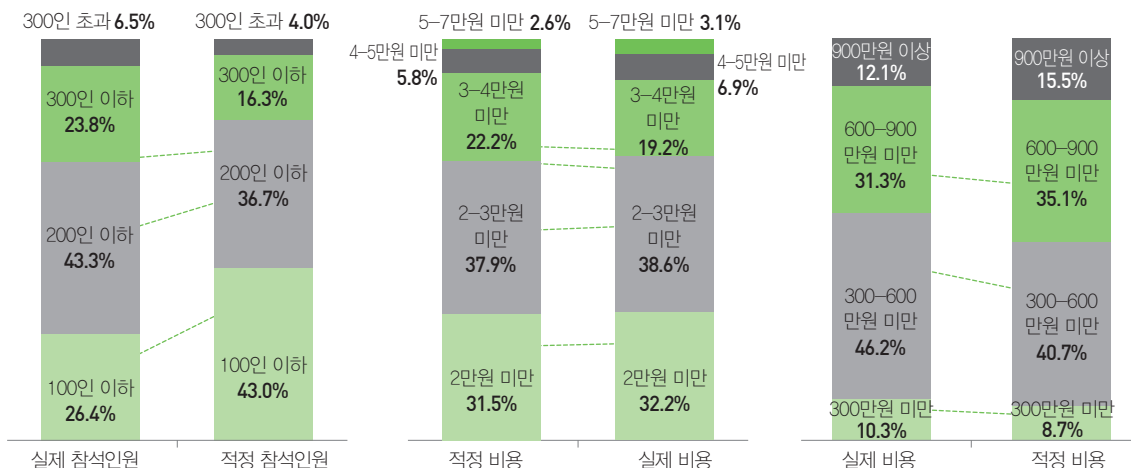
- 실제 참석인원은 200이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실제와 적정 인원 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 식사접대 비용 : 2만원 이상-3만원 미만이 적절하며, 실제도 유사함.

- 결혼식 전체 비용 : 적정비용으로 300-600만원 미만 (40.7%), 600-900만원 미만(35.1%) 순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도 300-600만원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결혼식 비용으로 결혼 적령기는 300-600만원 미만을, 부모세대는 600-900만원을 미만으로 제시해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그러나 실제 지출에서는 300-600만원 미만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 결혼식 전체 비용의 경우 적절하다고 생각한 비용보다 실제 지출 비용이 낮은 것은 주거비용 등의 상승 때문일 것으로 예측됨.



[그림 4] 결혼준비 적정-실제 비교

### 이슈 # 3

## 결혼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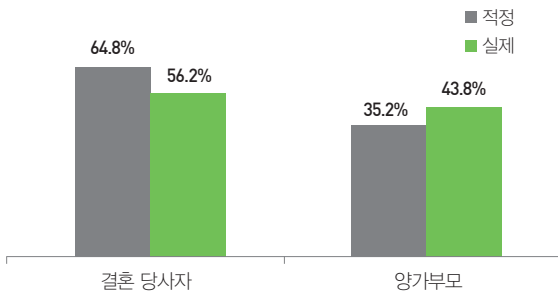
결혼 비용 준비는 '당사자'가 적절

실상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부모 지원'에 의존.  
두 명 중 한 명은 웨딩플래너 통해 결혼 정보 수집

- 결혼 비용은 당사자 간에 준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 부모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아직까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됨.

- 적절한 결혼비용 자금 지원대상자로는 결혼당사자 남성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여성이 30.5%로 나타남. 부모 측 지원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20% 미만임.

- 실제와 적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당사자가 준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64.8%이나 실제로는 56.2%로 나타나 실제와의 차이를 보임. 결혼당사자와 양측 부모로 나누어 살펴보면 여성이 '당사자'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 수준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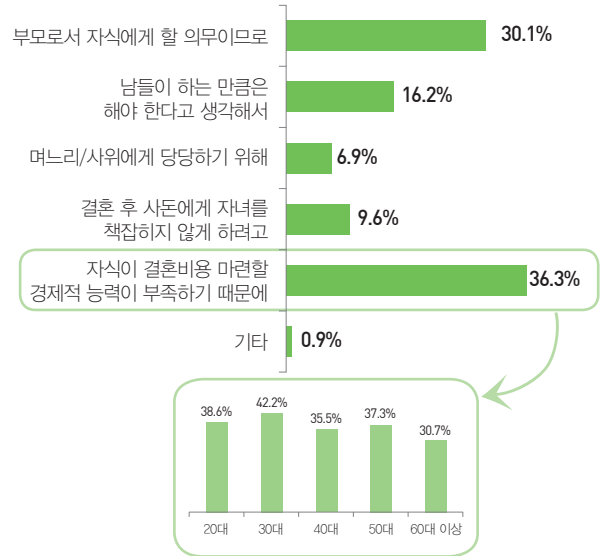


[그림 5] 결혼비용 자금지원 대상자

- 부모의 자금 지원 이유로 '자식이 결혼비용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36.3%)'이며, '부모가 자식에게 할 의무(30.1%)'로 인지하는 비율이 높았음.

-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는 30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에서 부모의 의무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았음.

- 자식세대의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결혼준비 비용 마련이 용이치 않기 때문에 부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았으며, 부모의 의무로 파악하는 경우도 다수로 나타나 자녀세대의 결혼비용 지원으로 인해 부모세대가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논의에 설득력을 더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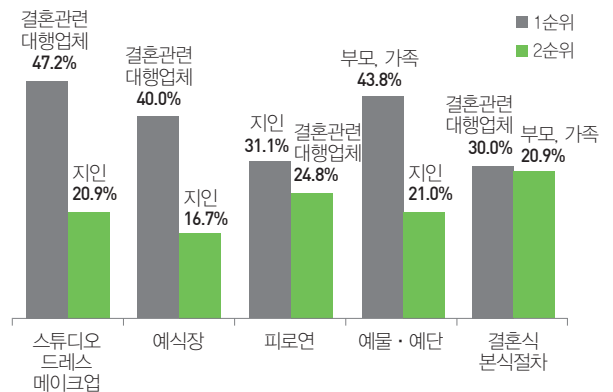


[그림 6] 부모의 결혼자금 지원 이유(복수응답)

- 결혼 관련 정보는 전반적으로 '결혼관련 컨설팅 대행업체(웨딩플래너)'를 통해서 수집하고 있으며, 피로연은 지인(31.1%), 예물-예단은 부모(43.8%)로 나타남.

-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과 예식장 정보는 결혼관련 컨설팅 대행업체(웨딩플래너)를 통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결혼 준비 과정 전반에서 컨설팅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음. 특히 여성들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예단·예물'은 '부모, 가족'과 '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이 높음. 소요되는 금액이 크고 본식과 별도로 이뤄져 주변인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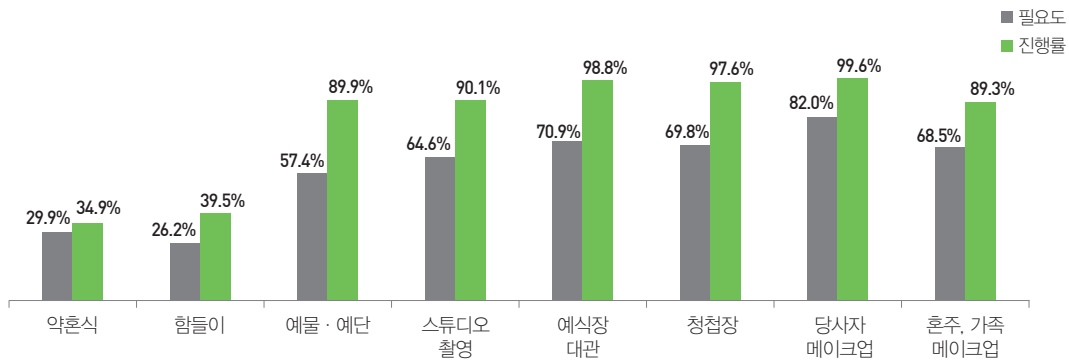


[그림 7] 결혼관련 정보수집 방법(1, 2순위)

## 결혼식의 이상과 실제

주례, 폐백, 피로연, 예물·예단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80% 이상 진행해 예물·예단, 폐백의 주 의사결정자는  
남자측 어머니, 혼주·가족 메이크업은 여자측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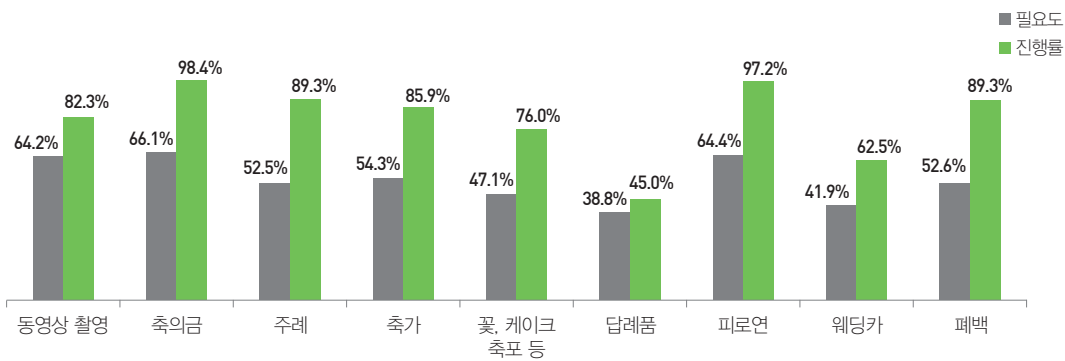
- 필요성이 낮은 절차는 함들이, 약혼식, 답례품, 웨딩카  
순으로 나타남. 실제 진행 비율이 높은 절차는 메이크업,  
예식장 대관, 축의금, 청첩장, 피로연과 신혼여행임.



[그림 8] 결혼식 전 항목별 인식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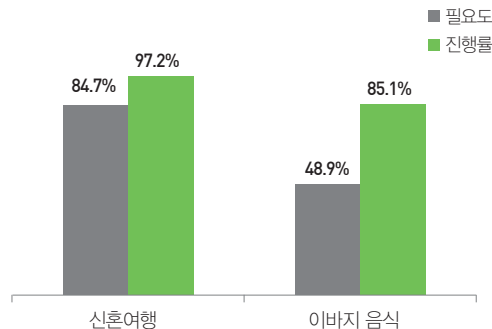
- **결혼 본식** 본식 절차에 대한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낮게  
인지함. '답례품(38.8%)', '웨딩카(41.9%)', '예식장 내부  
장식(47.1%)' 등이 특히 낮았고 '축의금(66.1%)'의 경우

필요성에 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남. 진행률은  
'축의금(98.4%)'과 '피로연(97.2%)', '주례, 폐백(89.3%)'의  
실시 비율이 높음.



[그림 9] 결혼식 본식 항목별 인식 및 현황

- **결혼식 후** 신혼여행은 필요성과 진행여부 모두 높았  
으나 이바지 음식의 경우는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강함.  
그러나 진행은 했다(85.1%)는 의견이 높아 의사결정자인  
양측 어머니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10] 결혼식 후 항목별 인식 및 현황

## 이슈 #5

### 작은 결혼식

작은 결혼식이란? 경제적 부담이 적고 결혼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예물·예단 부담없는 결혼식.  
정부에선 예식장소 및 물품대여 지원이 시급함.

■ 작은 결혼식에 대해 48.1%가 인지하고 있으며 필요성에  
대해 91.7%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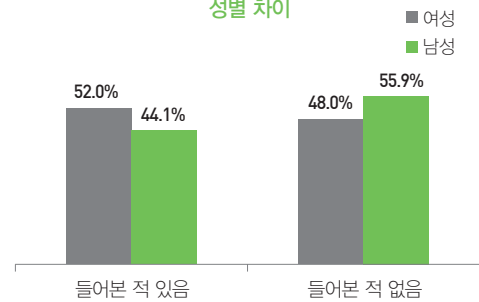
• 현재 작은 결혼식에 대한 인지는 여성(52.0%)이 남성  
(44.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62.7%)에서 인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  
연령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작은 결혼식의 필요성은 91.7%로 매우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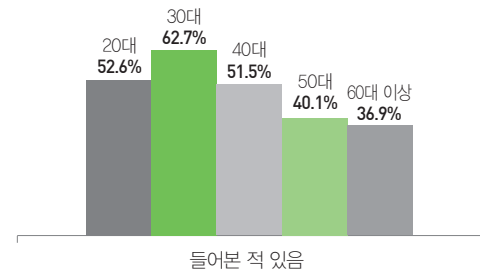
■ '작은 결혼식'을 정리하면 결혼 준비과정은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줄이거나 생략하고,  
본식을 비롯해 전 과정에서 결혼 자체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절차의 조정이나 간략화가 필요함. 또 전체 과정  
에서의 주요 의사결정은 당사자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작은 결혼식의 요소 중 경제적인 부분은 '경제적 부담을  
줄인 비용 절감 결혼식(25.5%)', '빚지지 않는(15.5%)'으로  
제시됨. 특히 '이슈 1'에서 결혼문화의 문제점으로 '형편에  
맞지 않는 과도한 혼수'가 가장 높은 것을 통해서도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음.

성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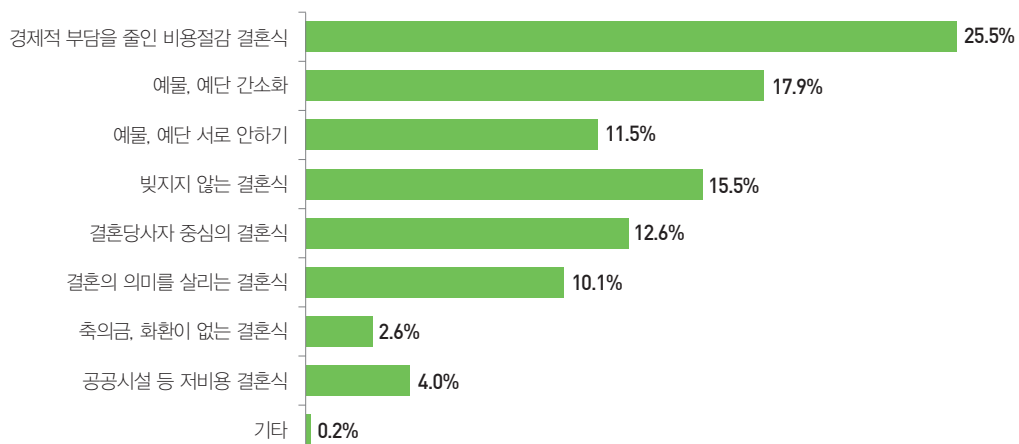
연령별 차이



[그림 11] 작은 결혼식에 대한 성별-연령별 인지도

• 또 '결혼 자체의 의미(당사자 중심 12.6%, 결혼의 의미  
10.1%)'를 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앞서 '이슈 4'에서 제시된 결혼식 전, 본식, 후 각각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높고 실제 진행률이 높은 항목을 중심  
으로 재구성되어야 함.

• 예물·예단과 관련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예물·  
예단 간소화(17.9%)'와 '하지 않는 것(11.5%)'으로 인식하  
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 앞서 분석에서와  
같이 필요성과 실제 집행간의 차이가 크고, 정보를 주로  
부모와 가족에게 얻는 절차인 만큼 실제 의사결정자로  
제시된 신부와 남자측 어머니를 중심으로 운영의 간소화  
혹은 생략이 필요하다고 보임.



[그림 12] 작은 결혼식의 요소

- 결혼과정에서 타인에 시선이나 필요성이 낮음에도 진행하는 절차가 상당수이므로 '작은 결혼식'에서는 일부 절차의 생략이나 간소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작은 결혼식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전반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특히 결혼 예식장소 및 관련 물품 대여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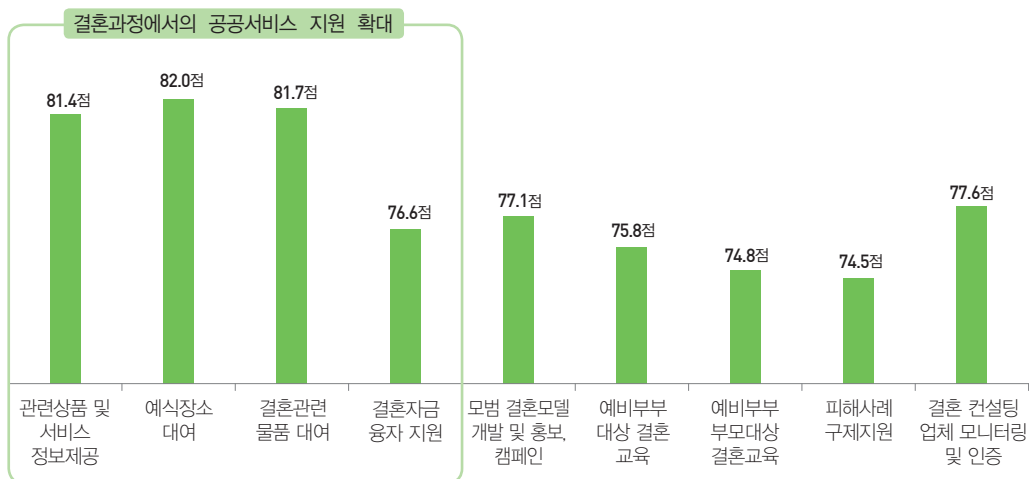
- 작은 결혼식의 확대를 위해선 '예식장소 대여(82.0점)'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어 '결혼 관련 물품 대여(81.7점)',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정보제공(81.4점)'순으로 나타나 정부에서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하게 나타냄.
-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제공과 예식장소 대여, 결혼 관련 물품대여, 결혼 자금 융자지원의 4가지 항목은 '결혼 과정에서의 공공서비스 지원 확대'로 정리될 수 있어 정부를 중심으로 공공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함을 알 수 있음. '이슈 3'의 '결혼준비'시 더하게 정보를 얻는가와 관련해 '공공서비스를 통해 정보 수집'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으로 파악됨. 결과적으로 '작은 결혼식'을 비롯해 다양한 결혼 관련 정보에 있어 공공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모델의 개발-홍보'에 대해선 남성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주도만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작은 결혼식의 확대와 홍보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함을 보여줌.

- 여성은 남성에 비해 '부모 대상의 교육'의 필요성을 좀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이는 결혼 과정에서 부모에 의해 '의사 결정'이뤄지거나 부모가 영향력을 미친다는 생각을 상대적으로 많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부모나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결혼 교육에서는 교육 대상에 따라 차별화해야 함. 교육은 우리사회 결혼의 문제점, '작은 결혼식'이 무엇이고, 구성과 진행은 어떻게 이뤄지는 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함.

- '피해 사례 구제지원(74.8점)'과 '결혼 컨설팅 업체 모니터링 및 인증(77.6점)'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남.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지속적인 모니터링(웨딩업체, 예식장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특히 결혼 전 과정에서 상당부분의 정보를 '결혼 관련 대행업체(웨딩플래너)'를 통해서 얻고 있는 만큼 불공정 약관의 시정, 피해 사례 구제 절차 등의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그림 13]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

### Ⅲ 작은 결혼식을 위한 제언

■ 본 조사 결과, 국민의 상당수가 우리 사회 결혼문화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실제 결혼 과정에서 간소화되지 않았으며, '작은 결혼식'에 대해 9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절반 이상이 들어본 적은 없다고 함. 이에 정부는 '작은 결혼식'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부분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맞춤형 제도를 수립하는 등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됨

#### ■ 첫째, 결혼식 비용을 절감 시켜주는 '작은 결혼식'을 위한 요구사항 반영

- 결혼 과정에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간소화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절감시키는 작은 결혼식을 위해서 '결혼 과정에서의 공공서비스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어 공공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지원임을 알 수 있음.

#### ■ 둘째, 작은 결혼식을 위한 공공서비스 지원 확대 및 시스템 구축

-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 '공공서비스 지원 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남. 공공서비스 지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식장소 대여', '결혼 관련 물품 대여'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활용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 공공 시설을 이용한 결혼식장의 개방은 현재 활용중인 시설이외에도 관공서나 지자체의 각종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함.
- 예) 청와대 사랑채 작은 결혼식

#### ■ 셋째, 작은 결혼식의 모델 개발 및 홍보, 캠페인과 관련해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확대

- '건전혼례문화 홍보안', '작은 결혼정보센터 홈페이지 (www.weddinginc.org)'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작은 결혼식 서명운동' 확대 등을 통한 홍보 활성화  
예) 사회지도층 '세상을 바꾸는 1,000명 서명' 캠페인
- 작은 결혼식 모델 제시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조선일보에서 진행한 '100쌍 캠페인'의 확대 및 지속

〈집필 : 이선민 부연구위원, 김신희 연구원〉

